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조혜경,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Hae-Kyung Cho, In-Sook Jung*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협동동료교수 학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9.0으로 분석한 결과, 외향적인 대상자와 토론선호도가 높은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p=.01$), 여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p=.03$), 내향적이거나 중간 성격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외향적인 대상자보다 높았다($p=.01$). 자가평가 학교성적별 '중상, 중, 중하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상' 집단보다 높았으나 학업성취도는 '상' 집단이 높았다($p=.01$). 의사소통능력 과 자기효능감 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협동동료 교수 적용 학과목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58, p<.05$). 본 연구결과는 반복연구 후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과중한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하며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효과적인 학업적응지도지침 개발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간호학과 신입생,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s to find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eer collaboration subject of nursing fresh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9.0. The communication ability was higher in the extroverts and high discussion preference ones($p=.01$), females' social self-efficacy were higher than males'($p=.03$), the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of the 'introverted' and 'middle' groups were higher than the extroverts'($p=.01$). The social self-efficacy on the 'middle high', 'middle' and 'middle low' of self-evaluated school grades groups were higher than 'high' one's, eve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group was the most($p=.01$).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and between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self-efficacy affect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peer collaboration subject($R^2=0.058, p<.05$).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guidelines of nursing freshmen who have to complete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in university.

Key Words : Nursing freshmen,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jung@cdu.ac.kr)

Received May 28,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15,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조직사회의 빠른 변화로 간호사는 다양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므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인 자아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성인으로서의 역할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상현장실습을 함으로써 사회에 조기에 노출되어 다양한 대상자들과 쉽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므로, 의사소통능력 부족 시 대인간의 갈등 초래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이다[1,2].

최근 들어 의사소통의 유형과 범위는 다양해졌으나, 간호대학생들은 실제 임상실습 현장에서 보건의료전문직 및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군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았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2,3]. 이에 따라,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과학내용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단순히 강의법이 아닌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하여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최근,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해결면에서 의존적이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의 저하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간호학과 신입생 전형에서 고등학교 계열에 관계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므로 입학직후부터 이수해야 하는 기초간호학과과목으로 당황하게 되어 중도 포기하거나 타과로 전과하는 사례들이 있어 간호학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5-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으며,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및 대학생활만족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발전과 지식증가 등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학습과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다[7].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습법 중 간호학에서의 활용 예는 극히 낮으나 타 학문분야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협동동료교수학습법이 있다. 동료교수학습과정에서 동료교수자는 직접적인 교수활동

을 위한 많은 준비과정 중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동료학습자는 동료교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4,8]. 협동동료교수학습은 동료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함으로써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와는 달리 의사소통,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간호학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협동동료교수 학습법 적용 학과목을 선정하여 그 학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협동동료교수법 적용 학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 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2017년 2학기 C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미생물학 수강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2로 효과크기 0.3, 검정력 95%, 유의수준 .05일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34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총 대상자수는 159명으로 적정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1.3 연구도구

· 의사소통능력

허경호(2003)의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이현숙(2010)이 수정보완한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현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 이었다[10].

·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의 'Self-efficacy Scale'을 홍혜영(1995)이 번안한 17문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6문항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총 23문항인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전체 척도 .83, 일반적 자기효능감 .84, 사회적자기효능감 .60 이었다[9].

· 학업성취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 연구기간 동안 대상자들이 수강한 협동동료교수학습법을 적용한 기초간호과학과목 중 미생물학 성적으로, 조별구성원의 상호평가로 이루어진 동료교수수행점수와, 협동동료교수 수행내용에 대한 지필고사가 포함된 점수로 전체 100점으로 구성되었다.

2.1.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학업성취점수와, 일반적특성과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지 165부로 불성실히 응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59부이며 SPSS/WIN 19.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는 t-test와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면, 대상자 중 여자가 74.8%로 많았고, 전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8.78세이었다. 자신의 성격 유형이 '중간'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9%, 토론수업 선호 '낮음' 이 42.1%, 리더경험 '없음'이 88.1%, 자가평가 학교성적 '중위권' 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each variables N=(159)

Division		N(%)	M(SD)*
Sex	Male	40(25.2)	
	Female	119(74.8)	
Age(yr)	18**	25***	18.78(0.80)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56(35.2)	
	Extrovert	38(23.9)	
	Middle	65(40.9)	
Discussion preference	Very low	22(13.8)	
	Low	67(42.1)	
	Moderate	54(34.0)	
	High	14(8.8)	
	Very high	2(1.3)	
Leader experience	Yes	19(11.9)	
	None	136(88.1)	
School grades	High	2(1.3)	
	Middle high	32(20.1)	
	Middle	86(54.1)	
	Middle low	36(22.6)	
	Low	3(1.9)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 Minimum value

*** maximum value

3.2 전체 대상자의 각 변수별 평균

Table 2에서 보면,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2.74점이었고, 자기효능감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각각 47.64, 17.50점, 학업성취의 평균은 82.82점이었다.

Table 2. Values of each variables

N=(159)

Division		M(SD)* of each variables	M(SD)* of each items
Communication ability		52.74(5.78)	3.52(0.39)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47.64(4.59)	2.80(0.27)
	Social self-efficacy	17.50(2.03)	2.91(0.34)
Academic achievement		82.82(8.23)	82.82(8.23)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차이

Table 3에서 보면, 성별별로는 여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3$). 성격유형별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의사소통평균이 ‘내향적’과 ‘중간’인 대상자보다 높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내향적’과 ‘중간’성격의 대상자가 ‘외향적’인 대상자의 평균보다 높았다($p=.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

균은 ‘내향적’인 대상자가 ‘외향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토론선호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매우높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 외의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보통’이 ‘매우낮음’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리더 경험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자가평가 학교성적별 분석에서는 ‘중상’, ‘중’, ‘중하’ 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평균이 ‘상’ 집단보다 높았고, 학업성취도는 ‘상’과 ‘중상’ 집단의 평균이 ‘중하’보다, ‘중상’이 ‘중’과 ‘중하’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p=.01$,

Table 3.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9)

Characteristics	Division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M(SD)	tor F(p) Tukey or Dunnett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M(SD)	tor F(p) Tukey or Dunnett
				M(SD)	tor F(p) Tukey or Dunnett	M(SD)	tor F(p) Tukey or Dunnett		
Sex	Male	52.23(5.99)	-.65 (0.51)	46.95(4.65)	-1.09 (.27)	16.90(2.13)	-2.17 (.03)	80.70(8.80)	-1.89 (.06)
	Female	52.92(5.73)		47.87(4.57)		17.70(1.96)		83.54(8.04)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a	50.09(5.66)	11.49(.01) b> a, c	48.80(4.19)	5.92(.01) a,c> b	18.16(2.78)	4.94(.01) a> b	82.48(7.87)	.07(.93)
	Extrovert ^b	55.26(5.94)		45.61(4.76)		17.03(1.46)		82.97(0.78)	
	Middle ^c	53.55(4.89)		47.82(4.50)		17.20(1.97)		83.09(0.03)	
Discussion preference	Very low ^a	50.36(5.48)	6.08 (.01) e> a,b,c,d c> a	48.68(4.29)	1.75 (.14)	18.00(2.05)	1.71 (.15)	83.68(7.04)	1.05 (.38)
	Low ^b	51.97(5.60)		48.04(4.68)		17.79(2.16)		83.18(7.09)	
	Moderate ^c	54.22(5.42)		47.17(4.65)		16.98(1.77)		82.96(9.33)	
	High ^d	52.36(4.75)		46.79(3.93)		17.43(2.07)		78.71(11.14)	
	Very high ^e	67.50(2.12)		41.00(2.82)		16.50(2.12)		86.50(0.71)	
Leader experiences	Yes	52.00(8.12)	-.59 (.55)	48.00(3.70)	.27 (.78)	17.68(1.49)	.42 (.67)	80.32(9.97)	-1.48 (.14)
	None	52.85(5.48)		47.70(8.03)		17.47(2.12)		83.32(8.03)	
School grades	High ^a	50.00(0.00)	.94 (.44)	47.50(7.50)	2.02 (.09)	13.00(2.83)	3.45 (.01) b,c,d> a	95.00(0.00)	10.10 (.01) a,b> d, b> c,d
	Middle high ^b	54.19(1.14)		46.91(0.75)		17.66(2.22)		88.84(5.48)	
	Middle ^c	52.69(0.55)		48.06(0.48)		17.50(1.97)		82.22(7.52)	
	Middle low ^d	51.97(1.13)		47.83(0.80)		17.75(1.73)		78.19(8.94)	
	Low ^e	50.00(2.00)		41.00(0.73)		15.67(1.16)		83.33(6.66)	

$p=.04$, $p=.0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그러나 의사소통과 학업성취 간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N=(159)

	Communication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285 (.01)		
Social self-efficacy	-.138 (.04)	.298 (.01)	
Academic achievement	-.030 (.35)	.004 (.47)	-.181 (.01)

Note: $r(p)$

3.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2.7%로 낮았고, 의사소통능력이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academic achievement
N=(159)

Variables	β	S.E.	β	t(p)	R ²	Adj R ²	F
Constant	94.091	12.526		7.512 (.001)	0.058	0.027	1.878
Communication	-.127	.134	-.088	-.951 (.343)			
General self-efficacy	.070	.157	.039	.450 (.654)			
Social self-efficacy	-.869	.337	-.210	-2.547 (.012)			

$p<.0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협동동료교수법을 적용한 미생물학 교과목의 성적을 학업성취의 도구로 선정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와 변수들 간의 관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의 3.61점이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인 3.60점보다는 낮았고, 수술실간호사의 3.37점이나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결과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인 3.42점보다는 높았다[1-3,11]. 이는 일부 임상간호사들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로, 간호학과 입학 후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의 수강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적용 교과목을 수강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별 의사소통능력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의 의사소통평균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별로 소수인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의사소통면에서 위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남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연구나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여자 간호사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별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2,3].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유형별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의사소통평균이 ‘내향적’과 ‘중간’인 대상자보다 높았는데 ($p=.01$), 이는 외향적인 임상간호사가 내향적인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의료요원 간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내향적인 성격의 간호학생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증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토론선호도에 따른 의사소통평균점수의 분석에서는 토론선호도가 높은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 또한 리더로서의 경험은 임상간호에서 업무성이나 수행 및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리더경험유무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12].

간호사의 필수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은 임상간호에서 업무성이나 수행 및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간호사의 조직업무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1,12].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소통능력이 임상간호사의 조직업무성과와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 임상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의사소통능력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1,2].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그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란 전반적인 업무수행 정도의 효과적인 예측자이다[13].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총점과 항목별평균은 각각 47.64점과 2.8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결과인 총점평균 53.5점이나, 항목별 평균 3.27점보다 낮았고, 일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인 56.79점보다 낮아 본 대상자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5-7].

본 연구 대상자에서 성별, 토론선호도, 리더경험 및 자가평가 학교성적 정도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가평가 성격유형에서는 '내향적'과 '중간' 성격의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평균이 '외향적'인 대상자의 평균보다 높았다($p=.01$).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결과, 실험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에서처럼 고등학교 재학 시와는 달리 과중한 학습량을 스스로 습득해야 하는 간호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 마련 및 적용이 필요하다[7].

정서불안이나 우울 같은 문제의 예측자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성공적유지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학업수행이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4].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총점평균과 항목별평균은 각각 17.50점과 2.91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결과인 총점평균 20.1점과 항목별평균 3.23점, 일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인 항목별평균인 3.30점보다 낮았다[6,7]. 또한 여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p=.03$), 여학생에 비해 소수인 남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학과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가 없어 이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나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5,6].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내향적'인 대상자가 '외향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대상자 자가평가 학교성적별 분석에서는 '중상', '중', '중하' 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평균이 '상' 집단보다 높았는데($p=.01$), 대상자 자가평가 학교성적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평균 학점이 낮은 집단의 자기효능감이 학점이 높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나, 자가평가 학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았다는 결과는 이들 집단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5].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 실험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사회적 자기효능감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나타내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7].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제한된 강의시간에 기초간호과학의 방대한 개념 및 내용을 습득해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생물 및 화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간호학과 입학 전 생물, 화학과목의 이수는 기초간호과학과 전공간호과학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기초간호과학은 전공간호학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15,16]. 특히 미생물학의 경우 감염병의 원인인 무수한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적용한 협동동료교수법은 수업에 임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게 되는데, 동료교수자는 교수자의 역할을 위해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조직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되고, 학습자는 자신과 유사한 능력의 친근한 동료교수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부담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4].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협동동료교수법을 적용한 미생물학 수업 후, 자가평가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업성취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성별별 분석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토론선호도가 높은 집단의 학업성취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간호학에서 협동동료교수 학습

법을 적용 후 학업성취를 본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의 양보다는 기존 지식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체를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하는 현 사회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사고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지식체를 생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17].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 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에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사의 업무효능을 증진시켜 조직성과를 높였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및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18].

또한 본 연구결과 설명력은 5.8%로 낮았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p<.05$).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간호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협동동료교수법 적용 학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었고, 성격과 토론선호도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격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가평가 학교성적별, 사회적효능감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반복연구 후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과중한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하며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효과적인 학업적응지도지침 개발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직후부터 과중한 학과부담을 갖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적응 증대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협동동료교수법을 적용한 다수의 학과목을 학업성취 도구로 선택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학과목에서 협동동료교수법 적용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B. Lee & M. S. Ko. (2015). The Effect of Clinical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3), 347-354. <http://www.riss.kr/link?id=S11655565>
- [2] J. K. Lee.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3] M. J. Lee. (2016). *Occupational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4] Y. H. Kim, I. S. Kweon, K. D. Kim, K. M. Park, H. S. Park, H. S. So, W. S. Lee, K. s. Chang, B. R. Jeong & E. H. Choi.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 Cases in nursing education*. Seoul : Fornurse.
- [5]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jkasne.2014.20.2.244
- [6] M. A. Kim, K. H. Lee, H. J. Park, E. J. Kim, & I. H. Lee. (2016). Relationships among Irrational Beliefs,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with Four-Year-Course Nursing Freshme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2), 1163-1178.

- UCI : G704-000930.2016.18.2.017
- [7] K. H. Lee. (2014). *Effect of REBT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A University, Pocheon.
- [8] M. C. Carey, B. Kent & J. M. Latour. (2018).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peer assisted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The JBI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and Implementation Reports Journal*. 16(5), 1190-1219. DOI : 10.11124/JBISRIR-2016-003295.
- [9]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10] H. S. Lee & J. K. Kim. (2010).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488-496. DOI : 10.11111/jkana.2010.16.4.488
- [11] E. J. Lim & Y. J. Yi. (2014). Comparis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313-321.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3.313>
- [12] J. Y. Choi. (2016).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 [13] D. J. Myung. (2013). *Effects of counselor activity 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on counselor's satisfactoriness :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agency's typ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4] H. A. Kang & A. Y.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2), 263-283. <http://www.kepa.re.kr/>
- [15] I. S. Jung. (2016). The Converging Effects of Complete Science Subjects in High School on the Grad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Major Nursing Subjects of Nursing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97-106. DOI : 10.15207/JKCS.2016.7.5.097
- [16] I. S. Jung.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he Studying Science Subjects before Entrance to Nursing department, the Scor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17-125.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09108>
- [17] J. Y. Ko. (2015). *The Effects of Career Programs Using the Debate Club on Career Maturity f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18] H. I. Park, S. M. Moon & E. M. Cho.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ollege Freshm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4), 1-21. DOI : 10.22251/jlcci.2017.17.24.1

조혜경(Cho, Hae Kyung)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호스피스, 인간관계
- E-Mail : hkcho43@hanmail.net

정인숙(Jung, In Sook)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jung@cdu.ac.kr